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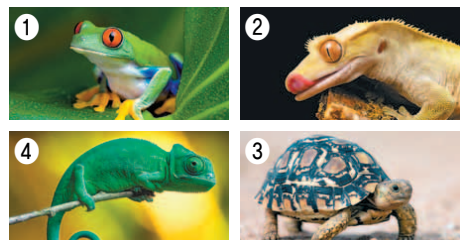
“파충류는 바쁜 현대인에 딱 맞는 반려동물”

양서파충류 기본상식 담은 바이블
무분별한 정보들을 바로잡고 정리
“올바른 사육문화 전달에 힘쓰겠다”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간교한 뱀의 말을 믿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날름 따 먹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성경의 제일 첫 권인 창세기에 등장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모양이 꼴로 살게 된 것의 단초를 제공한 뱀에 대한 인간들의 시선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생물학자들도 동의할 것이다) 창세기에 등장한 뱀은 지금의 뱀과 전혀 다른, 이른바 ‘옛뱀’이었다. 옛뱀은 다리 없이 흙바닥을 기어 다니지도 않았고 말도 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달변이었다. 사실이 이러하니 오늘날 인간의 구박과 멸시를 한몸에 받고 있는 뱀들은 제법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우씨, 그 뱀은 이 뱀이 아니라고!” 웃었다!

“징그럽다”, “무섭다”는 파충류를 보며 “귀엽다”, “재밌다”라는 사람들이 있다.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 이들인데 업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도 20만 명이 넘는 애호가들과 함께 200개 이상의 관련 업체, 전국 수십 개의 전시장이 있다고 한다.

최근 ‘양서파충류사육학(박영사)’을 출간한 저자들도 이런 동호인으로 출발했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PC 통신 시절, 천리안 파충류 소모임 방에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잘 맞는 반려동물은 양서류와 파충류”라고 단언하는 저자들과의 만남은 징그럽고 무서우면서도, 귀엽고 재미있었다.



1 레드아이트리프록(붉은눈 나무개구리) 2 레스트드 게코(속눈썹 도마뱀붙이) 3 레오파드 톨드 이즈(표범무늬 유지거북) 4 베일드카멜레온(투구머리 카멜레온)
사진제공 1 박영사



‘양서파충류사육학’ 저자들과 국내 최초로 대량파충류사육시스템을 도입한 전문가 미스터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안상준 박영사대표, 박성준 이사, 미스터단, 문대승 이사, 이태원 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양서류, 파충류를 좋아한다고 하면 주변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문대승(이하 문)=“막연히 ‘파충류’하면 징그럽고 위험하고 기본 나쁜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뱀 같은 동물은 누구나 거부감을 가질 만하지만 거북은 또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나 귀여워 보이는 강아지도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대상일 수 있다.”

차문석(이하 차)=“요즘은 놀라기는 해도 ‘신기하다’, ‘흥미롭다’는 반응이 더 많다. 특히 직접 키우거나 접해본 경험이 있는 10~20대들이 그렇다.”

-‘양서파충류사육학’은 어떻게 집필하게 된 건가.

문=“양서 파충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과 기르고 있는 마니아, 업계 종사자들에게 아직도 많이 낮은 양서 파충류라는 생물군의 기본 상식을 소개하고 애완동물로 사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대처에 대해 답하고자 했다. 양서 파충류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네 명의 저자가 머리를 맞췄다.”

박성준(이하 박)=“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다. 외국 서적, 인터넷 사이트를 번역한 내용이나 동호회, 블로그들의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시간이 들었다. 저자들 역시 각자의 직업이 있다 보니 2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다.”

-출판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박=“안상준 박영사 대표는 거북이 마니아로 대학생 때부터 만나온 사이다. 회사 입구에 큰 거북이 사육장이 있을 정도로 거북이를 좋아한다. 흥미 위주나 단발성 정보가 아닌, 검증된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학술서적을 출간해 온 박영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은 안상준 대표인 것 같다(웃음).”

-한국양서파충류협회는 어떤 협회인가.

문=“양서 파충류 관련 소매업체, 사료업체, 사육관련용품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2017년 11월에 창립했다. 크게 관련 법안 제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고, 박람회 등을 후원해 저변 확대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 자격증을 발행해 사육자들이 전문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태원=“국내에서 양서 파충류를 키우는 데 따른 어려움은 크게 미성숙한 특수반려동물 문화, 관련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제도 미흡으로 볼 수 있다. 시장과 문화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다보니 올바른 사육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정부도 유통, 거래에 규제를 가하려고만 하지 말고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한 애완동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동물로서 양서 파충류만의 매력은.

차=“바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울리는 동물이다. 포유류, 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 먹이, 관심이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보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잘 맞는 반려동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은 ‘애완’이 아니라 ‘반려’의 시대다.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들은 더 이상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삶을 나누는 반려의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반려가 ‘주인과 사육개체가 교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양서 파충류는 반려동물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반려가 ‘애정을 주고 거기에서 오면 만족감과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양서 파충류 사육은 끊임없이 쏟아 붓는 액사랑에 가깝지만, 이들은 정확히 주인이 쏟은 사랑만큼 반응한다. 양서 파충류는 반려동물일까, 당연히 그렇다(이태원).”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저자 프로필

이태원=▲한국양서파충류협회 회장 ▲생명과학박물관 수석실장
문대승=▲한국양서파충류협회 이사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
박성준=▲한국양서파충류협회 이사 ▲에듀허프 대표
차문석=▲한국양서파충류협회 이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반려동물계열 교수

양서파충류관리사는?

양서파충류협회 주관 자격증 전시 기획·사육 능력 등 평가

한국양서파충류협회(회장 이태원)가 주관하는 양서파충류관리사는 양서 파충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 및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다. 양서류 파충류 전시 기획, 표본을 포함한 전시물의 제작, 번식을 위한 이론 및 설비 제작 등과 사육 환경의 조성, 식단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협회 관련 업체, 동물원, 체험학습장, 생태공원, 자연사박물관 등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할 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나 기존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매년 보수교육이 제공된다. 자격증은 1급, 2급, 3급. 양서파충류해설사로 나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3급)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다.

박성준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이사는 “양서파충류관리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관련학과 학생 및 현업 종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협회와 MOU를 맺은 학교 학생은 특강 수료, 일반인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응시 가능하다”며 “단순히 취미로 기르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파충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가 파충류를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가 등록하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 ▶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 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상동안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릎편에 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과당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릎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릎편에는 4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시킬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릎편엔
1670-5467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따의 놀라운 성능

제품명: 허리따따
제조/판매원: 휴먼
재질: 길이: 대, 중, 소
무게: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가볍고 반영구적 손발레 가능
제조국: Made in Korea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허리따따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 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찜질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 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찜질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과당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4가지 광물(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방해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
1600-1047